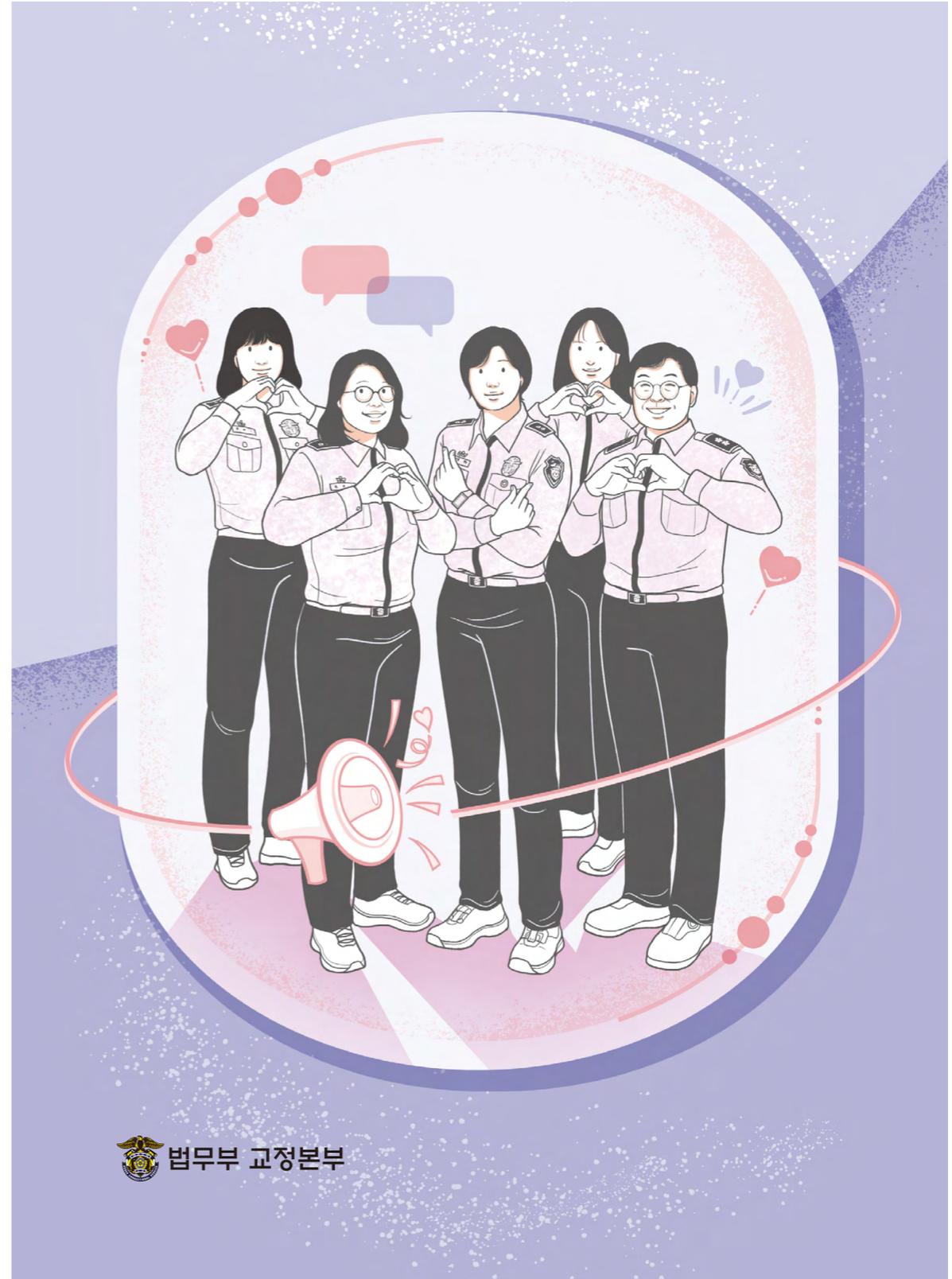


 법무부 교정본부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법무부 교정본부

COVER STORY



긍정과 배려 위에 피어난 이야기꽃
청주여자교도소 보안2부

2026년 『교정』 첫 호의 표지 인물은 청주여자교도소 보안2부 사람들입니다.
‘여성 교도관 양성소’라 불리는 곳, 신규 직원이 유달리 많이 들어오는 교정기관,
그럼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격려와 칭찬의 순간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긍정, 이야기꽃은 그런 토양에서 피어납니다.

교정 풍경	02
교정인의 눈	08
교정직필	12
스마트 교정	14

職터뷰	18
나이스 투 밋 유	22
만나다, 잇다	26

교정Toon	28
슬기로운 교정생활	30

로컬의 취향	32
--------	----

일상력연구소	36
라이프 2.0	40
나의 마음은	42

교정본부 뉴스	44
교정기관 오늘	48
독자마당	52

Contents

교정

Vol.596
2026 JAN+FEB

생각을 잇다

낮고 따뜻하게, 정읍교도소의 겨울	02
조직 냉소주의는 깨뜨릴 수 있다	08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방법	12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얼마나 클까?	14

마음을 잇다

다만 닳고 싶은 사람, 전주교도소 정재형 교감	18
청주여자교도소 보안2부가 소통하는 법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명예로운 ‘끝’과 행복한 ‘시작’이 공존하던 날!	26
신규 공무원의 적응일기	28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30

일상을 잇다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처럼 (with. 순천교도소 신광식 교위)	32
2026년 돈 공부, 금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6
은퇴 후 현실 미리보기	40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일까?	42

소식을 잇다

교정본부 주요 소식	44
전국 교정기관 소식을 전합니다	48
초성퀴즈 이벤트	52

발행인 이훈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6년 2월 5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낮고 따뜻하게, 정읍교도소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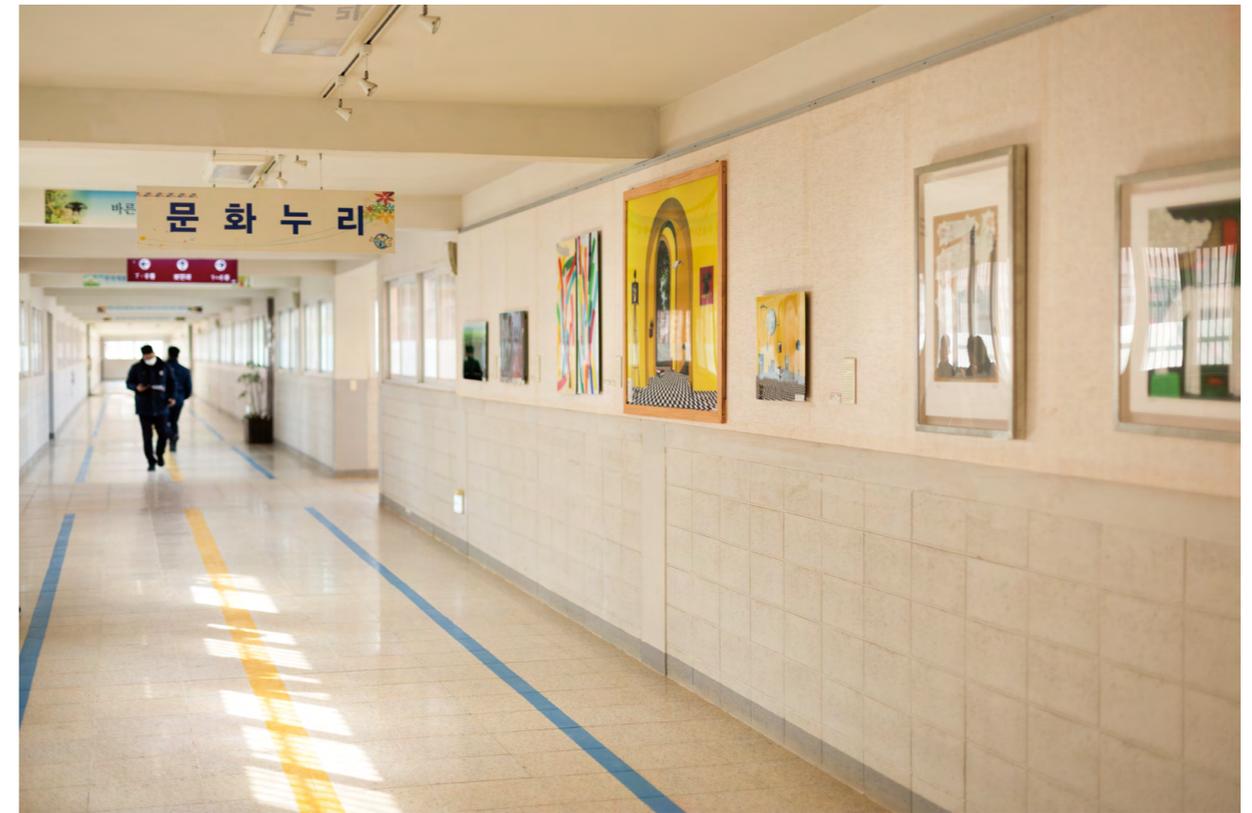
정읍교도소는 2015년 개칭한 이래,
정읍 시내 근거리에 다정한 이웃으로 자리했다.
저층 분산형 설계가 빚어낸 낮은 건물과
그 공간을 데우는 마음의 온도... 겨울인데도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정읍교도소의 풍경들.



관내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밝고 산뜻한 벽이 있다.
2015년 개칭 당시, 지역 화가들이 그린 벽화가 자리했던
이 벽은 최근 새롭게 단장됐다. 10년의 세월 동안 비와 눈, 바람에
씻긴 그림이 민원인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할 것을 우려해서다.



1



2

3



- 1 희망도서관은 2021년과 202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용자가 출소한 후 삶과 맞닿을 수 있는 책을 고르고, 또 단정하게 정리해온 마음이 받은 상이다.
- 2 보안과 주 복도 갤러리. 걸음을 따라 시선이 닿는 곳마다 참회와 위로가 깃들어 있다.
- 3 有備無患(유비무환), 정읍교도소 보안과의 현판 역할을 하는 액자에 담긴 네 글자다.



4

내장산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섰을 때, 산의 품에 안긴다는 말을 실감했다. 저마다 이름이 다른 봉우리들이 손을 잡고서 계절의 찬 기운을 뚫고 오른 이방인을 느슨하게 안아주었다. 정음은 내장산의 너르고 완만한 산세가 내려앉은 땅이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고 새벽 안개가 다반사다. 서쪽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내장산을 넘지 못하고 정음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 희고 흐린 정경은 정음에 또 한 겹의 푸근함을 두른다.

정음교도소의 첫 인상 또한 낮고 가만했다. 2015년 개청해서 이제 갓 11년 차를 맞이한 정음교도소는 처음부터 '저층 분산형' 구조로 계획됐다. 필요한 공간들이 세로로 쌓이는 고층 구조에 비해,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교정 사고를 예방하기에도 좋은 구조다. 수용동 대운동장에 지열 배관 파이프를 심고, 민원인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은 모습도 정음교도소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덕분에 연간 30%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감한 운영비는 수용자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늘리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재투자될 수 있죠." 총무과 최요한 교위는 "수용자 처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희망도서관은 정음교도소가 첫손에 꼽는 자랑이자 정음교도소의 색깔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개청 당시 지역 주민들과 기관이 모아준 5,000원으로 꾸린 희망도서관의 장서는 현재 7,300권, 분야별로 단정하게 분류돼 도서관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책을 미리 선정해서 구매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을 매일 체크하면서 최종 구매 목록을 완성하고요." 사회복귀과 김사민 교위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수용자들의 출소 후 삶이다. "교도소가 '범죄학교'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학교

가 되기를 바라죠. 출소했을 때 느낄 사회와의 거리를 줄여주고 싶고요. 책이 그 통로가 되어줄 거라 믿어요."

희망도서관은 2021년과 2025년,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보안과 주 복도에서 뜻밖의 풍경을 마주했다. 걸음을 따라 시선이 닿은 곳마다 걸린 그림들... 수용자와 교도관이 공유하는 길 위에서 예술은 각자에게 다른 말을 걸고 있는 듯하다.

공간의 온도와 색을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좋았어요." 총무과 채종건 교위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든 이유다. 직업훈련과 오원현 교사가 선택한 종목은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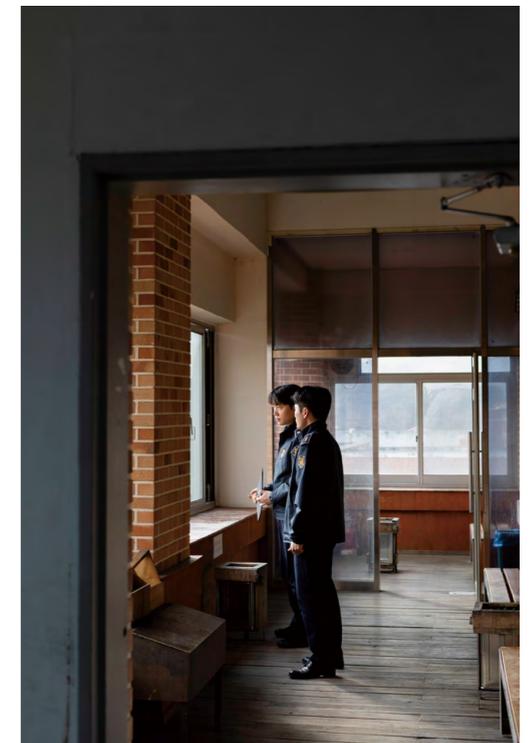
복싱, 10년 차 복서이지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기보다는 혼자 하는 훈련을 즐긴다. "사람을 때릴 줄 몰라서요." 그렇게 말하곤 이내 샌드백 앞으로 돌아간다. 손목에 보호대를 감는 복지과 이성주 교도의 모습에서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매일의 일을 대하는 마음이 짐이 쌓인 몸이 내뿜는 기운이다.

점심시간, 연무관의 온도는 뜨겁다기보다 훈훈한 쪽이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 응원하기에 딱 좋은 온도, 웃음소리마저 나지 못한 정음교도소의 공기에서 따뜻함이 느껴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 4 무언가를 '자킨다'는 같은 사명을 띤 정음교도소와 정음의 내장산.
- 5, 6 겨울 연무관은 체력 단련에 나선 직원들이 내뿜는 열기로 훈훈했다. 그들의 마음이 가닿는 곳은 휴연지기. 때로는 동료와의 호흡, 어쩌면 긴장으로부터의 탈출일 테지만 이 매일의 시간들이 모여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의 일상이 된다.
- 7 수용청사에서 바라본 수용동의 모습. 때마침 햇살이 따뜻했다.
- 8 휴게실 창 앞에 선 두 청년의 시선이 수용동을 향했다. 아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처럼.

8





조직 냉소주의는 깨뜨릴 수 있다

조직 냉소주의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조직과 개인이 서로의 원 날개와 오른 날개가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교정의 선배로서 다양한 연령대의 후배들을 만나고 있다. 후배들의 성장과 조직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특히 최근 교정에 입문한 후배들은 우리의 미래이므로 이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교정의 가치를 이해하며,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한다.

과거에는 교정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법학이나 행정학 등 공무원 시험에 널리 적합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정학, 심리학, 인문학, 공학, 간호학 등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를 공부한 후배들이 크게 늘었다.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거나 다른 직종의 일을 하다가 고심 끝에 교정공무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령도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다.

낮은 보수와 처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공무원의 인기는 다소 떨어졌다. 다행히 정부가 공직 이탈에 대한 위기를 감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시 경쟁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각종 통계와 뉴스가 뭐라고 하든, 그들은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이 된 인재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교육 과정을 마쳤으며, 발령 이후에는 각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직 냉소주의는 어디서 올까?

그들을 만나고 나면 교정행정의 미래에 더 큰 희망을 품게 된다. 그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다 실패해서 차선으로 교정직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부와 사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교정직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와의 만남은 내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준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직에는 정반대의 모습도 있다. 현장에서, 업무장에서, 때로는 카페의 토론 내용이나 댓글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태도를 마주할 때면 가슴속에서 커지던 희망이 한풀 꺾인다. 제아무리 각자도생이 사회적 현상이라지만 냉소주의적 태도가 팽배한 조직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부담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책임감의 다른 면인 부담감이 종종 냉소주의로 흐르기도 한다. 그런데 후배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경험 많은 직원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냉소주의(Cynicism)는 '사회, 또는 타인을 바라볼 때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을 말한다. 냉소주의로 일관하는 사람은 도덕이나 선의(善意)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는 불공정하며 타인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로 살아간다. 냉소주의와 조직이 결합한 조직 냉소주의(Organization Cynicism)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영진, 정책, 제도, 변화 및 혁신 활동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이유 없는 무관심이나 적대감, 극단적인 불신을 나타내는 현상'을 뜻한다. 학자들은 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①성공적이지 못한 변화 정책 ②효과적이지 못한 리더십 ③의사 결정에의 참여 부족 ④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결여 등을 들고 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

조직 냉소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태도로는 정책이나 경영진, 조직문화에 대한 냉소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조직의 일원은 무력감, 거리감, 소외감, 적대감, 분노 등의 감정에 쉽게 노출되며 비협조적, 복지부동(伏地不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을 이르는 말), 아직 기회 탐색 등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불신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구심점이 바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뢰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성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일에 대한 타당성 인식,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업무 부담에 대한 제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냉소주의적 태도를 가진 직원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조직은 여러 개인의 합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맨 처음 할 일로 '초심(初心)'을 제안한다. 처음 입문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건전한 생활이 가져다 주는 여러 이점을 하나씩 되짚어보자.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독서나 스포츠, 취미 활동처럼 평범하지만 건강한 일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자.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실한 하루하루가 다시 돌아온 초심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이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 평생을 몸담아야 하는 조직에서 개인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 상·하 간, 선·후배 간, 동료 간의 두터운 신뢰와 변화에 대한 확신, 일관성 있는 행동,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희망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조직이 될 것이다.



한희도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평생을 몸담아야 하는 조직에서 개인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 상·하 간, 선·후배 간, 동료 간의 두터운 신뢰와 변화에 대한 확신, 일관성 있는 행동,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희망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조직이 될 것이다.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방법

”그럼, 문맹인 내 친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나?”
나는 내 경험 바깥의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실패를 통해 알았다.
대화가 어긋날 때조차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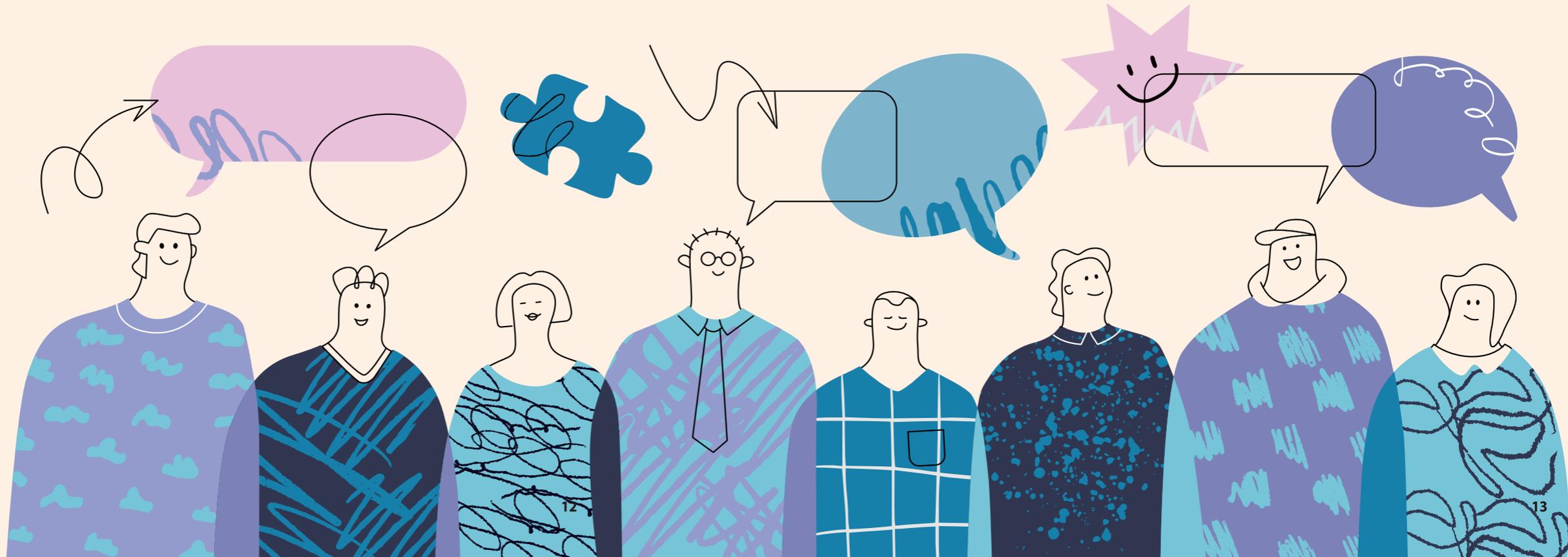
아버지는 교도관이셨다. 어린 시절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꽃무늬 소파에 앉아 아버지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곤 했다. 가끔 아버지는 까칠한 재소자들을 상담하며 마음을 돌려놓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처음에는 까다로운 성격 탓에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아버지의 교화로 태도가 달라졌고, 출소할 때는 “주임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 자신은 본래 꼼꼼한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상담을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많아졌다고 하셨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낯설고 거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네는 것임을. 그 영향 덕분일까. 신기하게도 나 역시 아버지처럼 교정 일을 하고 있다. 원고를 읽고 교정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출판 편집 일이다. 쓰는 한자는 조금 다르다. 아버지의 교정(矯正)은 바로잡을 교(矯)를 쓰고, 내가 하는 교정(校正)은 학교 교(校)를 쓴다. 어느 쪽이든 바를 정(正)을 지향하는 마음은 같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 어쩌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에 나는 『동료에게 말 걸기』(민음사 펴냄)라는 책을 냈다. 부제는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다. 서로의 말이 자꾸만 어긋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었다. 나와 견해가 엇갈리는 가족, 관심사가 다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어떻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나도 대화에 실패한 적이 많다. 평소 사이가 좋다가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와 나 사이는 싸늘해지곤 했다. 어느 날인가 말싸움처럼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헛김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쓰아붙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되물으셨다. “그럼, 문맹인 내 친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난 1980년대에는 문맹을 친구로 만나기 힘들지만, 1950년대생인 아버지 세대에게 문맹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같은 가족이라도 다른 세계를 살아온 것이다. 나는 내 경험 바깥의 세계를 상상하지 못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세대 간의 간극과 나의 몰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실패를 통해 배웠다. 대화가 어긋날 때조차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을 줄이고 그 자리에 상대의 말을 채워 넣으면 많은 것이 변한다. 차분하고 느리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 한 마디가 내 안에 무겁게 자리 잡는다. 그렇게 말을 곱씹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하다.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대화 덕분에 비로소 나의 세계는 조금 넓어질 수 있었다. 결국 좋은 대화란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 나를 바꿔가는 노력으로 이뤄진다. 동료는 매일 같은 일터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지만, 내면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동료가

지닌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상대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여 서로 호감도 나눌 수 있다. 잘 말하기는 잘 듣기에서 시작한다.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다. 마음이 맞는 동료라면 경청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잘 듣기가 잘 말하기로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다. 말을 건네는 태도에 이미 상대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는지, 아니면 가르칠 대상으로 보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년에는 동료의 말을 먼저 잘 듣고 맞장구를 치며 다정한 말을 건네 보면 어떨까. 내 말의 무게를 줄이고 상대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작은 노력이 우리를 더 단단한 동료로 만들어줄 것이다.



박동수
편집자이자 작가. 경주에서 태어나 자랐다. 사월의책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며 철학책을 만들고 있다. 『철학책 독서 모임』과 『동료에게 말 걸기』를 썼다.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얼마나 클까

직무 스트레스의 크기부터 회복 자원까지,
한눈에 보는 교정공무원들의 마음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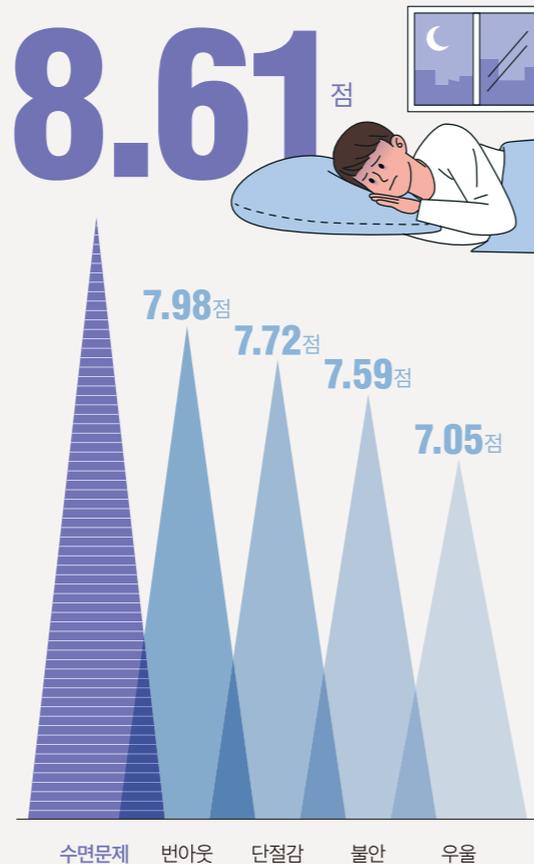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 결과,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50.1%)'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용자가 송치된 사건은 2020년 82건에서 2024년 137건으로 4년 사이 67.1% 증가했다. 수용자 관리 항목에서는 수용자 인권이 우선되는 분위기(37.5%), 근무환경 항목에서는 폐쇄된 근무환경(28.0%)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나이대별로는 40대에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 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근무 연차에 따라 차별화된 돌봄이 필요해 보인다.

● 법무부가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이 조사는 다양한 직급과 연령대의 교정공무원과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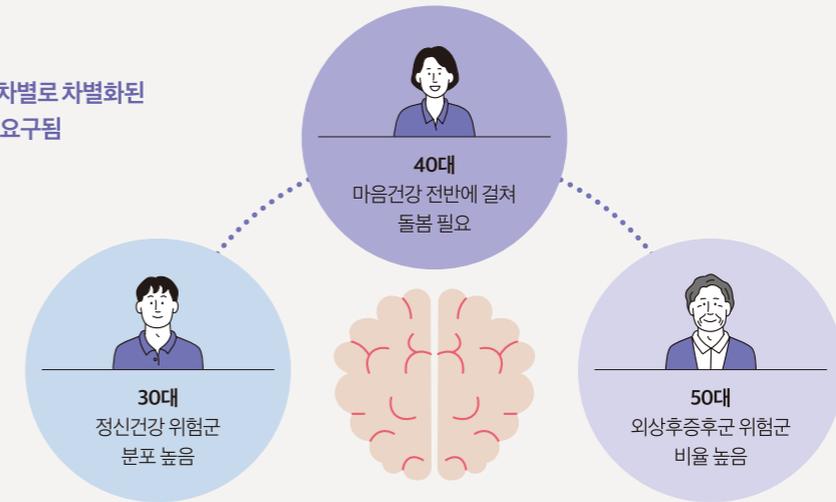
비위험군의 마음건강 문제 요인

※최대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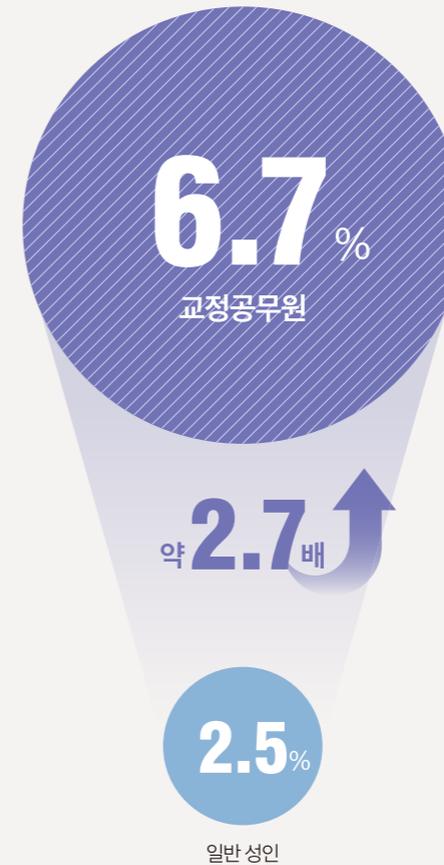


나이대별 마음건강

✳ 근무연차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됨



자살 계획 경험률 비교



자살 시도 경험률 비교



✳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이 약 1.6배로,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정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까?

출근해서 수용동에 딱 들어가면 수용자들과 같이 갇혀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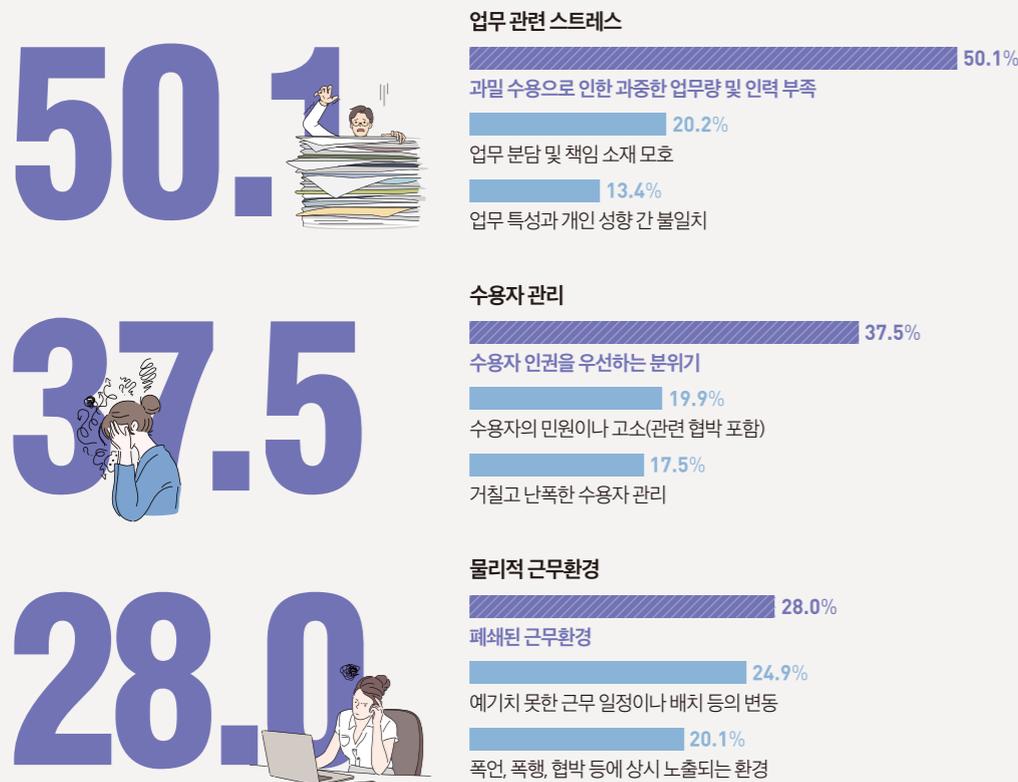
근무할 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사회와 단절됐다는 느낌, 고립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수용자 자살이나 폭행 가능성이예요.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하지?'

과밀수용이 지속되다 보니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도 잦습니다.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도 크게 늘었고요. 교정공무원 대부분이 업무 과중 상태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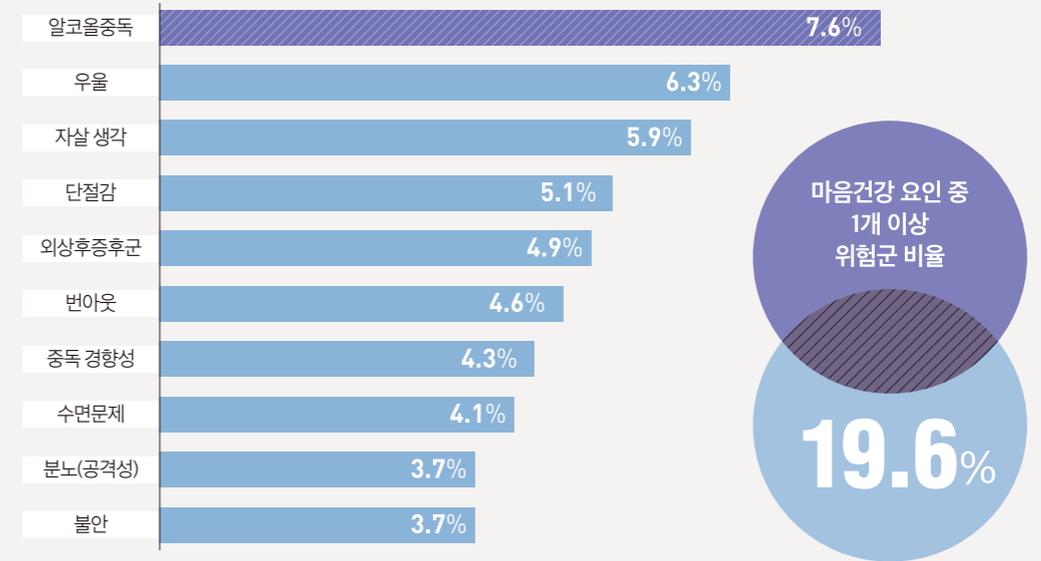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항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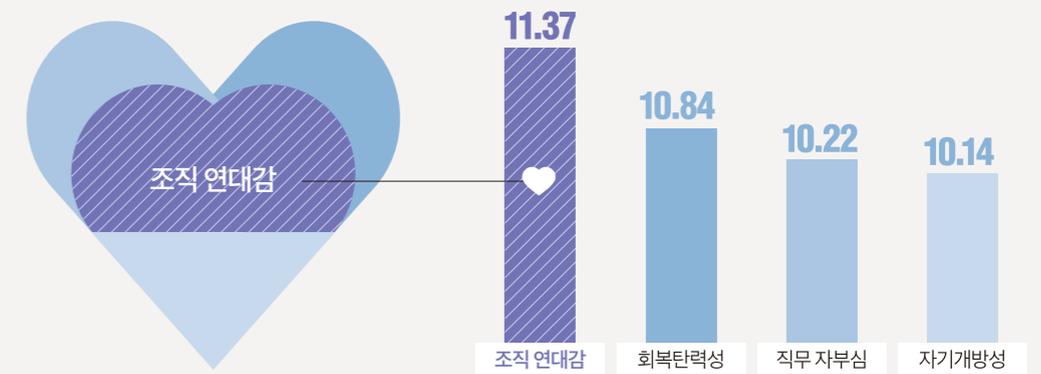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있을까?

위험군의 마음건강 요인



정신건강 악화를 완화하는 '마음 자원'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이나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교정공무원이 수면 문제, 번아웃, 단절감 등을 높은 수준으로 겪고 있었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 대비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높은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는 마음 자원으로는 조직 연대감이 1위를 차지했으며, 회복탄력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성 편집부 참고자료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다만 ‘답고 싶은’ 사람, 전주교도소 정재형 교감

그를 추천한 이유에는 표창도 상장도 없었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일상의 습관까지, 다만 “그의 뒤를 따르고 싶다”는 후배의 고백이 있었을 뿐. 지금도 교도관 직무교칙 기본강령을 토씨 하나 틀림 없이 외우고 있는 정재형 교감을 전주교도소에서 만났다.



“나의 시절인연, 전주교도소 정재형 계장님을 칭찬합니다”로 시작된 글은 “선배님을 칭찬하지 않는 건 후배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로 끝을 맺었다. 세상은 칭찬에도 기록을 요구한다. 상이나 숫자, 때로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이 칭찬에는 인품과 태도,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지난해 1월, 법무שמ에 올라온 이 칭찬 글은 조회수 총 4,021회를 기록했으며 1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전 근무지였던 목포교도소 동료들은 그를 그리워했고, 전입지인 전주교도소 동료들은 ‘보배의 귀환’에 크게 기뻐했다. 한파가 호된 경보음을 울리던 날, 전주교도소에서 정재형 교감을 만났다. 외유내강, 글에서 보았던 ‘인자한 원칙주의자’와 마주 앉았다.

교정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996년 8월 장흥교도소에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전주교도소로 전보되어 24년간 전주에서 근무하면서 직업훈련과와 총무과, 보안과를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2년 교감 승진과 동시에 목포교도소로 전보, 2년 6개월 동안 야간수용팀장을 맡아 일했으며 2025년 1월 전주교도소로 재전보되어 지금은 보안2부 당직 교감으로 근무 중입니다.

목포에서 함께 근무한 김성규 교위의 칭찬 글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칭찬 글 소식을 접하고 김성규 교위에게 따로 연락하셨나요?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칭찬거리도 아닌데 그런 글을 썼냐”고 했더니 허허 웃더군요. 김성규 교위와는 목포교도소 근무 기간 내내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야간수용팀장을 맡아 일했고, 김성규 교위는 부팀장 역할인 상

담주임이었으니까요. 김성규 교위는 유도와 주짓수 유단자이고, 헬스로 꾸준히 몸을 단련해서 함께 근무하는 날이면 참 든든했어요. 수용자가 소란이라도 일으키면 단숨에 제압하고, 일처리도 깔끔한 유능한 교도관이네요. 책도 많이 읽고 글쓰기에 취미가 있어 조만간 소설을 출간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생각이 잘 맞았습니다. 문제 수용자를 처리하는 기준부터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태도까지, 합이 아주 좋았어요.

칭찬의 이유가 ‘좋은 사이’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댓글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 릴레이를 이어갔더군요. 특히 ‘외유내강’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라웃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8월이면 교도관이 된 지 만 30년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동료들이 기억하는 지금의 모습은 달라진 후의 저예요. 저 역시 한때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2003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초기만 해도 근무를 마치면 동료들과 소주 한 잔하며 하루의 노고를 털어놓는 생활을 지속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인이면서 오히려 ‘인지 부조화’가 심해졌어요.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수용자에게 이런 배려를 해야 하나? 그들에게 인권이란 표현이 가당한 일인가?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마음속 갈등이 사그라들더군요. 수용자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죄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 수용자를 미워하는 한 저는 죄인인 거죠.

수용자를 향한 사랑이란 ‘모범적인 수용자에게는 자애롭게 대한다’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교도관 직무교칙 기본강령을 보면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어때요, 마음에 와닿나요? 저 또한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럴 듯한 말만 써 놓았나 싶었죠.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교도관의 인격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용자에게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뢰를 얻지 못해요. 학처럼 고고하게 굴러는 말이 아닙니다. 교도관의 할 일, 다시 말해 수용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말썽을 피웠던 수용자 편지를 읽을 때면 무척 즐겁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은 걸 보니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요.” 30년 재직 기간 동안 이룬 성취를 물으니 정재형 교감은 수용자들이 보내온 350여 통의 편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파로 차가워진 벤치 위, 정재형 교감이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모범적인 교도관의 제1 덕목은 '사랑'이다.



수용자의 표정이 유난히 어둡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죠. 이유가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줘야 해요. 죄가 무겁든 가볍든 다 접어두고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에게 수용자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규칙을 위반하는 수용자에게는 예외 없이 규정대로 처리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양날의 검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수용동에 근무하는 날에는 ‘입실 거부’가 안 나오게 하자.” 제가 맨 앞에 두는 그날의 목표예요. 입실 거부는 교도소 조사 업무의 80%를 차지해요. 일단 발생하면 조사하고, 징계를 매기고, 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일이 뒤따르고요. 입실 거부 없으면 총무과, 의무과, 송무팀까지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교정 행정력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수용자를 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조언이 있을까요?

수십,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직원을 고소하는 수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로지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행동인 경우에는 더 밀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이 답이에요.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게 사람 심리이니까요. 그러니 피하는 대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용 가능한 요구인지 판단해서 가능하면 처리해 주고, 그럴 수 없는 요구라면 분명하게 지적해줘야 해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근무자에게 상담을 청하는 게 낫다는 것을 알려주어야죠. 그 과정에서 근무자에 대한 신뢰도 쌓여요. 규율 위반 행위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교도소에는 ‘안면 장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수용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교도관이 근무할 때 사고 확률이 낮아서 생긴 말입니다. 실제로 근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수용자들이 선행을 행할 확률은 현저히 낮죠. 반대로 눈길을 주기만 해도 수용자들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이자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제 원칙은 보통은 가기 싫어하는 부서, 힘든 직무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려고 해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요”

30년 재직하시는 동안 슬럼프도 있었나요?

‘수용자를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사명감에 규율 위반 수용자를 혼자 감당하려다 수용 질서가 흐트러진 경험이 있어요. 이후 옳고 그름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게 됐고요. 당시 두려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수용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그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집니다. 수용자와 직접 마주하면서 그 또한

나와 같은 사람임을 인지하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아 나가고,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지죠.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좋은 어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감님의 후배들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감님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임관하는 후배들은 제 아들딸 또래라 더 애정이 갑니다. 제가 그 시절에 했던 실수들, 잘 몰라서 해했던 일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지금도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를 할 때면 후배들과 함께 출동하거든요. 아픈 수용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싸움은 어떻게 제압해야 하는지... 백 마디 말로도 할 수 없는 조언이 상황에 대처하는 제 모습에 담겨 있기를 바라면서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한 직업에 30년째 몸을 담고 계십니다. 특별한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교도관은 늘 밝은 면과 맞닿아 있어야 해요. 세상과 단절되어 수용자들과 붙어 지내는 생활에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날에는 좋은 여행, 좋은 음악, 좋은 책과 가까이 지냅니다. 뷰가 좋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멍을 때리기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날은 사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매일 기상 후에는 30분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6년 붉은 말띠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마음에 품은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실 새로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이자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전주교도소는 50년 넘은 노후화 시설이고, 누범과 중환자 비율이 높은 교정기관입니다. 일하기에 녹록치 않은 곳이에요. 그런 만큼 직원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일하면서 제 원칙은 보통은 가기 싫어하는 부서, 힘든 직무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려고 해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요.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왼쪽부터 김근한 교감, 박다혜-황지영 교도, 최보빈 교도시보, 정미선 교감, 겨울비를 가려주는 치마처럼, 서로의 우산이고 싶은 마음을 주고받았다.

청주여자교도소
보안2부가
소통하는 법

“불필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신규 직원이 많은 팀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배려하는 팀 문화를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답을 찾았다.

청주여자교도소 본관 2층 강당, 야간근무를 마친 보안2부 사람들이 이 속속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로 29년 차 김근한 교감이 유일한 남성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개청되어 2022년 천안개방교도소가 여성 전용 개방 교도소로 전환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여성 교정 시설이었다. 240명의 직원 중 남성 직원은 35명, 그 중 일반직 남성 직원의 수는 17명이다. 2006년에 임용된 정미선 교감은 20년째 첫 근무지인 청주여자교도소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듯 여성 비율이 높은 팀은 어떻게 일할까? 1년 차와 20년 차는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할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니어와 주니어가 마주 앉았다.

Chapter 1

다정하지만 솔직하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동기 없이 혼자 왔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씩씩했습니다.” 황지영 교도는 2025년 9월 보안2부로 왔다. 자기 소개 첫 줄부터 당차다. 아직은 시보인 최보빈 교도는 “할 말이 있는데 안 해본 적, 지금까지는 없어요”라며 보안2부 분위기를 전했다. 근속 2년을 채워가고 있는 박다혜 교도는 종종 후배들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보드게임을 즐긴다. “술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자랑이 이어졌다. 젊은 여성 특유의 발랄함이 먼저, 한편으로는 단단한 연대가 느껴졌다. 후배들을 바라보는 두 선배의 얼굴에서 흐릿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여성 교도관들에게는 필수 코스예요. ‘여성 교도관 양성소’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만큼, 많은 여성 교도관들이 이곳을 첫 임용지로 선택해 실무를 배웁니다. 대부분은 3일간의 짧은 교육을 거쳐 바로 실무에 투입돼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용 중인 장기수용자, 뉴스에서 봤던 강력범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후배들은 곳곳하게 잘 해냅니다. 신규 직원이 만나 싶게 제 몫을 다 합니다.”

김근한 교감



신규 직원이 많은 만큼 청주여자교도소는 이들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줬다. 빠듯한 업무 일정 때문에 별도의 온보딩 기간은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신 보안2부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 부서원이 기꺼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다.

“6급 이하는 보통 6개월의 시보 기간을 갖는데, 우리 부서 정원 19명 중 2~3명이 시보예요. 타지에 와 낯선 환경에서 업무를 익히며 홀로 서느라 얼마나 힘들지... 보고 있으면 장하고 또 애잔하죠. 그래서 시보 해제 날이면 전 부서원이 뜨겁게 축하해줍니다. 케이크에 불을 켜고, 치킨 기프트콘도 쓰고요. 저는 시보를 떼는 새내기 교도관에게 결재 도장을 선물해요. 공무원 업무 과정에서 도장은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새로운 동료들 환영하고, 멋진 출발을 응원하면서 건네는 거죠.”

정미선 교감

Chapter 2

모두의 ‘꿀팁’으로 완성하는 업무인수인계

이런 보안2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정미선 교감은 ‘나눔’을 꼽았다. “신규 직원 유입이 잦다 보니 누군가를 시작 단계부터 안내하는 데 익숙해요. 그 과정이 쌓여 나눔이 당연한 일이 됐어요. 예전부터 선배들이 업무 수첩을 물려주셨고, 지금은 배치개소별 업무인수인계부로 그 전통을 이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싶은 내용까지 적혀 있는데, 그게 우리 소 업무인수인계부의 매력이에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소소한 팀의 소중함을 알고 있거든요.” 이 다정한 전통을 물려받고,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외부 통근 수용자들이 있는 ‘소망의 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사무실 한 칸에 파일 더미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빛 바랜 연습장을 한 권 발견했어요. 우리 소에서만 수십 년을 근무하신 선배님, 지금은 퇴직하신 선배님들 성함이 거기 있더라고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일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읽은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은 수첩이 아닌 문서 파일 형태이지만, 무엇을 적고 공유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다혜 교도

“3일 교육받고 바로 현장에 배치됐는데, 같은 조 선배님이 업무인수인계서를 1줄 1줄 읽어주시던 기억이 나요. 사실 신규 직원들은 봐도 모르거든요. 선배님 목소리에 비로소 머릿속에 불이 들어왔죠. 업무인수인계서에 버튼 위치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최보빈 교도시보



수첩이 내리사랑이라면 디지털 시대의 업무인수인계서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선배 근무자에게 넘겨받은 노하우부터 특이사항까지, 깨알처럼 더해져 최신 버전으로 거듭난다. 정미선 교감은 후배들에게 업무인수인계서를 건네 받을 때마다 수정과 보완의 흔적, 다음 근무자를 향한 마음을 발견한다.

Chapter 3

후배에게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이 알려준 것

소통이 어려운 건 후배보다 선배 쪽일 수 있다. ‘말보다 행동으로 귀감이 되려고 해요.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항상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이나 규율은 글자로 배울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직접 봐야 와닿아요. 말로만 하면 잔소리에 다음 아니죠.’ (김근한 교감) 혹시 후배들의 당돌함에 당혹스러웠던 적은 없을까? ‘3요(제가요? 정말요? 왜요?)’ 앞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 정미선 교감은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저는 3부제 시절에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후배였으니까, 선배들이 알려주면 무작정 따랐죠. 그런데 요즘 후배들은 달라요.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질문을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혹시 내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예를 들면, 배치할 때 직원 1명이 빠지면 메워줄 직원을 찾아야 하는데, 부탁을 잘 들어줄 것 같은 후배를 먼저 떠올릴 수 있죠. 후배들의 질문 덕분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김근한 교감이 요즘 후배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은 ‘열정’이다. “질문도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때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후배들은 열을 알고 싶어해요. 오늘 인터뷰에 앞서 ‘어떻게 대답하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챗GPT에게 물어봐서 알려주더군요. 내가 너무 갈혀 있었구나, 문득 깨닫게 됐어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한다면,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건 오히려 축복이에요.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청주여자교도소에 와서 그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한 걸음씩, 어떤 때는 반 보씩, 조금씩 시야를 넓히고 있어요.”

Chapter 4

“선배가 걸어온 길보다 좋은 레퍼런스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후배들에게 선배는 어떤 존재일까? 교정공무원이라는 특수성, 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자 교과서 같은 존재... 그 무게가 관계에 독이 되지 않을까? 보안2부 신규 직원 3인방의 답변은 그런 우려를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배는 걸어 다니는 챗GPT’라고.”

교도소 일을 다른 분들에게 여쭙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스마트한 챗GPT이시죠.”

최보빈 교도사보

“수용동 근무 첫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던 기억이 나요. 교도관의 일은 교육이나 공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선배님들 말씀, 선배님들이 수용자들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선배님들의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황지영 교도

“저에게 선배는 ‘먼저 길을 간 사람’입니다. 사실 그 길을 먼저 걸었다고 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타인과 꼭 나눠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난 선배님들은 정말 아낌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때론 감동적일 정도로요. 근무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가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것을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그 마음이 믿음직한 동료를 키워내는 사이클이 아닐까 생각해요.”

박다혜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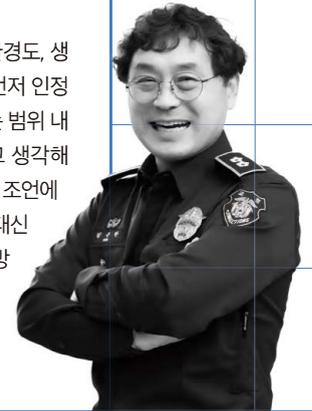
때로는 사뿐하게, 때로는 진중하게. 그들의 시선은 ‘차이’가 아닌 ‘하 나’를 향하고 있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임을 서로 아는 것. 청주여자교도소도 보안2부의 소통은 거기서 시작한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나만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김근한 교감

지금 후배들은 저와는 살아온 환경도, 생각의 방식도 많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죠. 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후배가 찾아오면 우선 조언에 대한 책임감부터 내려놓습니다. 대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는 ‘함께 방법을 찾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합니다.



정미선 교감

성격이 급했던 저는 말실수를 줄이고 제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말하기’는 그 고민 끝에 탄생한 제 말하기 방식이에요. 누군가 의견을 내면 바로 평가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정리한 후에 말을 꺼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이렇게 하면 실수나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박다혜 교도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려고 노력해요.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해서 등산도 하고 러닝도 합니다. 요리도 즐기는 편이라 동료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고요. 이 활동들을 대부분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추억은 물론 감정까지 공유하게 되잖아요. 다음날 만나면 어제와는 다른 관계가 됐다는 게 느껴져요.



망설이지 않고 들이대는 편입니다. 원래 사람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 마음을 굳이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화 싫어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와 함께 근무 서는 보안2부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즐기고 싶을 때는 미리 말씀해주세요.



황지영 교도

최보빈 교도사보

아직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질문 폭격기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질문에 요령이 생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여기까지 마쳤는데 다음 순서가 헛갈립니다’ 하고 여쭙보는 거죠. 선배들을 덜 귀찮게 하고 제가 원하는 답은 더 빠르게 얻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질문 잘하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예로운 '끝'과 행복한 '시작'이 공존하던 날!

33년 4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한 선배, 그 선배를 떠나 보내는 후배들의 몽글한 진심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성직업훈련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날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날, 2025년 12월 31일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도 특별한 '끝'과 '시작'이 있었다. 이날 퇴임식은 교정본부장 감사패 전달로 시작해 가족들의 인사와 축하 연주, 후배들이 손수 준비한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김옥립 교도의 축하 「My Way」와 앵콜 곡 「Oh! Sole Mio」까지 더해져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겼다. 멀리 창원과 진주에서 달려온 가족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는 후배들이, 후배들의 영상 편지가 흐를 때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몽글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이 자리에서 석길영 교감은 "이제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맡기고 마음 편히 떠나겠습니다"라며 후배들에게 응원을 보냈고, 안영삼 소장은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정말 보내기 싫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한편 『교정』은 33년 여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후배들에 대한 고마움을 서로에게 전하던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커피트럭을 깜짝 선물했다. 오전 10시 30분에 문을 연 커피트럭은 오후 1시까지 직원식당 앞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맞이했다. 예기치 못한 이벤트에 놀라는 것도 잠시, 직원들은 동료들과 함께 줄을 서서 환담을 주고받으며 순간을 즐겼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만큼 다양한 소화가 쏟아졌는데... 문준식 교위는 "바깥과 단절된 세상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에게는 단비 같은 이벤트"라며, "덕분에 잠시 고된 일을 잊고 쉬어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해왔다. 2027년 퇴직을 앞둔 유태덕 교도는 "석길영 교감 퇴임식에 온 커피차라 더욱 반가웠다"고 말했다. "퇴직은 제2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마땅히 축하 받을 일"이라는 것. "상큼한 레모네이드로 몸과 정신을 깨우고 간다"는 박은호 대체복무요원의 산뜻한 후기까지! 오늘의 정성이 작지만 달콤한 응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피트럭 보내드려요!

『교정』의 커피트럭 응원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특별한 행사를 앞둔 교정기관에서는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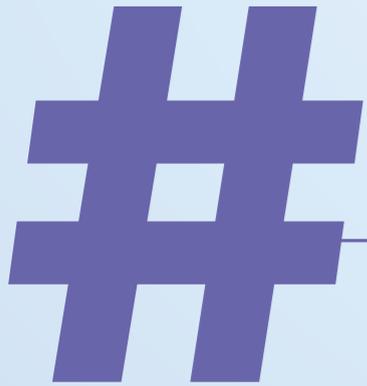
신규 공무원의 적응일기

글·그림 김지영 교사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붉은 말띠해' 시작!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멋지거나 즐겁거나, 2026년 첫 번째 『교정』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교정공무원들의 일상.



한지현 교도
장흥교도소



#우리소지킴이

새해를 축복하듯 함박눈이 내리던 날, 커다란 감동을 선물한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소 시설관리인 허종복 님이세요. 주차장에서 관사 앞까지, 그 많은 눈을 혼자서 치우셨거든요.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초과근무 신청도 안 하셨더라고요! 제설용 오토바이를 몰고 소 구석구석을 누비시던 모습은 지금도 직원들 가슴에서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이호승 교감
군산교도소



#시고르자브 #사랑둥이

군산교도소에는 특별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접견 온 사람들이 두고 간 녀석들인데요. 직원들은 사료와 간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호회까지 결성, 벌써 7년째 살뜰히 돌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털빛만 봐도 사랑받은 티가 나지 않나요? 군산교도소 오시면 짹 내서 녀석들의 애교에 흠뻑 빠져보세요~.



이서연 교위
대전지방교정청



#너내동료가돼라

힘들고 지칠 때 곁에 좋은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즈음, 동료들과 조출하게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힘나는 말을 건네는 사이, 오늘 하루도 그런 동료로 살아보아요!



김동균 교위
수원구치소



#풀업의제왕

작년 12월 14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맨몸운동대회 '로드오브더바(Load of the Bar)'가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로드오브더바는 철봉, 머슬업, 핸드스탠드, 로잉머신 등 전신을 활용한 고난도 종목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예요. 저는 풀업(30대 이상) 부문에 출전해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대한민국 교도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하민 교사
공주교도소



#달려라교도관

지난해 '교도관 직무 역량 경연대회' 5위에 빛나는 대전교도소 팀원들과 금산마라톤대회에 참가했어요. 결과는 전원 완주! 올해는 '제1회 세종시 전국마라톤대회'로 새해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2027년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했네요. 앞으로도 이 기세, 이어나가 보려고요. 대전교도소 직무역량팀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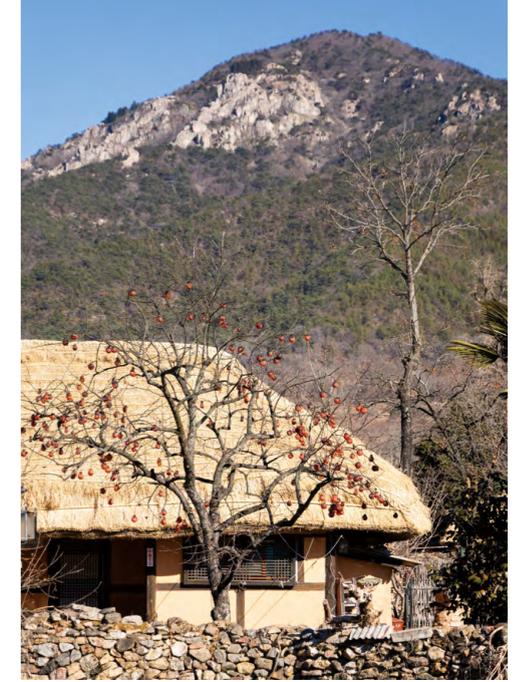


순천 사람과 순천 여행하기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처럼

남원이 고향인 신광식 교위는 여러 해 전에 순천에 뿌리를 내렸다.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보는 건 어때요?” 그의 제안으로 시작한 당일치기 시간여행 in 순천, 그 여행 어디쯤에서 순천만 갈대들의 합창을 듣게 된다.

순천만 습지는 갯벌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광활한 생명의 보고다. 바다와 강이 교차하는 이곳에는 짙둥어, 농게, 칠게, 갯지렁이 등 수많은 갯벌생물이 살아가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철새들이 날아와 지친 날개를 쉬어간다.

“길은 안 막혔습니까?” 그날의 날씨 만큼이나 쾌활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번 여행의 안내자를 자처한 신광식 교위가 흰철한 후배를 대동하고 순천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순천은 품이 너른 땅이다. 소백산맥 끝자락이 뿔은 명산 조계산(해발 884m), 그 부드럽고 아늑한 산세가 품은 선암사와 송광사,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 습지, ‘한국의 우유니’로 불리는 와온해변까지. 며칠을 묵어도 떠남이 아쉬울 순천에서, 순천 사람들이 골라낸 당일 여행 코스에 대한 호기심이 부풀어올랐다. 운전대는 김지열 교위가 잡았다. 순천에서 나고 자란 그가 이끈 첫 번째 행선지는 낙안읍성이었다. 낙안읍성은 현존하는 읍성 가운데 조선 전기 양식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석성(石城)이다. 태조 6년 왜구를 막기 위해 토성을 쌓았고, 조선 중기에 낙안군수 임경업 장군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순천 사람들의 낙안읍성 자랑 첫 줄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낙안읍성은 여느 민속마을처럼 박제된 과거가 아니다. 성내에서 생활하는 100여 호의 주민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대를 이어 마을을 지켜온 이들이다. 김지열 교위는 낙안읍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계절로 겨울을 꼽았다. “성곽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면 초가집 굴뚝 위로 연기가 피어 올라요.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정말 장관이죠.” 마음 한 편에 품은 고향의 모습, 내리는 눈을 맞으며 동치미를 뜨고 계실 어머니... 그처럼 그리운 감각이 낙안읍성에 살아 있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천의 모습입니다.” 순천만 습지로 향하는 길, 신광식 교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여행자를 순천만으로 데려다주는 건 모노레일인 스카이큐브(Sky Cube)다. 하늘 길을 5분쯤 달리면 멀리 바



람을 따라 춤추는 갈대가 보인다. 신광식 교위가 이곳을 ‘순천의 오늘’로 꼽은 이유 역시 계절에 있다. 순천만 습지는 22.6km²의 갯벌과 5.4km²의 갈대밭이 어우러진 광활한 생명의 보고다. 바다와 강이 교차하는 이곳에는 짙둥어, 농게, 칠게, 갯지렁이 등 수많은 갯벌생물이 살아가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철새들이 날아와 지친 날개를 쉬어간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난다. 이번 겨울에 순천만에 도래한 흑두루미는 8,000여 마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신광식 교위는 순천만 생태체험선에 오르던 날, “자연과 사랑에 빠지는 첫 경험을 했다”고 한다. 생태체험선은 멀리서 새들의 생김새를 어렵하던 그를 여러 종의 새들이 유영하는 물 위로 데려다줬다. 일몰이 이는 하늘과 물길이 만나는 수평선 위로 펼쳐진 새들의 군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신광식 교위가 안내한 ‘순천의 미래’는 순천만국가정원이다. 이미 순천의 대표 여행지로 알려진 이곳을 다시 호명한 이유에는 순천만이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 습지를 지키기 위한 순천의 선택이에요.” 개발을 향한 인류의 이기심이 순천만까지 밀려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두른 넓고 두터운 띠, 순천은 그 진심 위에 정원을 조성했다. 한국의 전통 정원을 비롯해 스페인, 네덜란드, 멕시코 등 11개 국가의 정원은 행선지를 정하지 않은 산책의 도중에 불현듯 나타나 즐거움을 선사한다. 순천 사람들에게는 뜻자리 하나 달랑 들고 와서 햇빛을 즐기는 피크닉 명소다. 생태를 보존하려는 선한 의지가 삶의 기쁨이 되는 순환, 순천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그런 곳이었다.



Eat & Place

순천 사람이 추천하는 진짜 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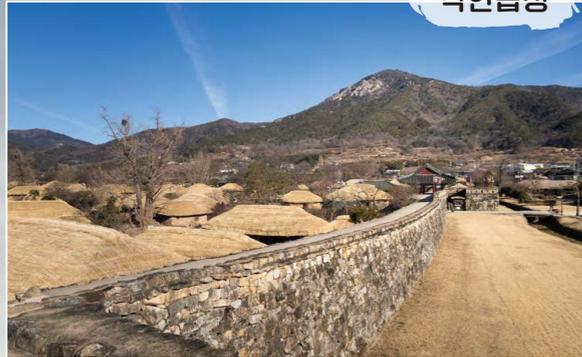
겨울 순천은 고요하고 차분한 매력으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따뜻한 먹거리와 한적한 풍경 속에서 쉬어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리스트, 제대로 즐기는 팁까지.



낙안읍성에서의 하룻밤

낙안읍성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머물'이다. 지금도 성 안팎에서 주민들이 실제 아궁이에 불을 때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집들이 민박을 겸하고 있으므로 하루이를 묵어도 좋다. 남부지방 특유의 주거 양식과 부엌, 토방, 툇마루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집에 머물며 돌담길을 거닐고 초가지붕 위로 드리운 겨울 햇살을 만끽해보자.

낙안읍성



순천만 습지

순천만 습지를 즐기는 3가지 방법

순천만 여정은 모노레일인 스카이 큐브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갈대밭 사이로 난 하늘 길을 5분 여 달리다 하차하면 갈대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버스에서 내리면 어디서든 철새를 만날 수 있다. 갈대밭 사이로 난 1.3km 데크 산책은 필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용산전망대와 생태체험선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것. 생태체험선은 일몰 즈음에 탑승하기를 추천한다. 갈대버스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모여 있다.



벽오동

순천 백반 업그레이드

비옥한 들과 넉넉한 바다를 품은 순천 백반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다. 계절에 맞는 산해진미를 차려내고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백반집이 많다.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벽오동은 현지인들이 손님 대접할 때 찾는 곳이다. 추천 메뉴는 보리밥 정식. 1만 5,000원에 4가지 나물, 수육, 불고기, 생선구이, 톱 쏘는 물김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한상차림이 여행자에게 에너지를 채워준다.



웃장국밥거리

'맛보기 수육'의 매력

순천 사람들이 첫손에 꼽는 '소울' 푸드는 단연 돼지국밥이다. 곱창이나 내장이 아닌 머릿고기를 푹 고아낸 맑은 국물, 느끼함을 잡아주는 콩나물이 순천식 국밥의 특징. 순천인을 사로잡는 특이점이 또 하나 있으니, 국밥 두 그릇을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맛보기 수육'이다. 맛보기라지만 아삭하게 데친 부추까지 얹은 제대로 된 한 그릇이다. 이 맛을 보고 싶다면 웃장으로 갈 것! 괴목국밥을 비롯해 맛집 인증을 받은 국밥집이 즐비하다.



빵지순례지라면

순천 사람들은 말한다.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순천에는 조훈모가 있다'고. 순천 빵순이, 빵돌이들의 프라이드를 느낀인 조훈모과자점은 제빵 경력 30년이 넘는 조계훈·훈모 씨 형제가 1994년 개장, 지금은 순천 시내에서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 낙안의 배를 썰어 넣은 '배빵'으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지만, '한국 제과 기능장의 집'답게 샌드위치부터 소금빵까지 일류의 맛을 자랑한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조훈모과자점



2026년 돈 공부, 금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자’라고만 생각했던 금리가 알고 보면 내 자산가치와 환율, 나아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한다면? 베테랑 경제기자와 함께하는 2026년 돈 공부, 첫 번째 주제는 ‘금리’이다.



집을 사느라 은행에서 돈을 빌린 A씨. 은행에서 온 공지 문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연 이자가 5%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도대체, 대출이자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할까요? 주식이나 가상통화에 투자해본 적이 저축만 하는 B씨. 예·적금을 찾아봤더니 연이자 3%가 넘는 상품이 없네요. 도대체, 예금이자는 왜 박해지기만 할까요? 소득과 지출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한 가운데 ‘금리(金利)’가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사람들의 금융생활을 넘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 환율, 나아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흐를지 알고 싶을 때 금리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리 공부 기초편

도대체 대출이자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금리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중에 돈이 적는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다면 이자를 많이 줘야겠죠. 즉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적는데 시중에 돈이 많다면 이자를 적게 줘도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죠. 금리를 보면 현재의 경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다면 투자나 지출을 꺼려서 돈의 수요가 줄죠. 그러면 금리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다면 돈을 쓰려는 사람이 많아져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나쁘면 돈을 떼일까 봐 빌려주기를 꺼리는데요. 그러면서 돈 구하기가 힘들어 금리가 폭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경제의 온도계’라고 합니다.

금리,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금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금리도 있습니다. 이를 ‘정책금리’라 부릅니다. 정부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돈을 찍어내는 권한(발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정책금리로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받을 때

적용하는 이자입니다.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이 금리를 ‘기준’으로 시장금리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시중에 푸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반대로 돈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정부가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금리에 따라 사과 값이 달라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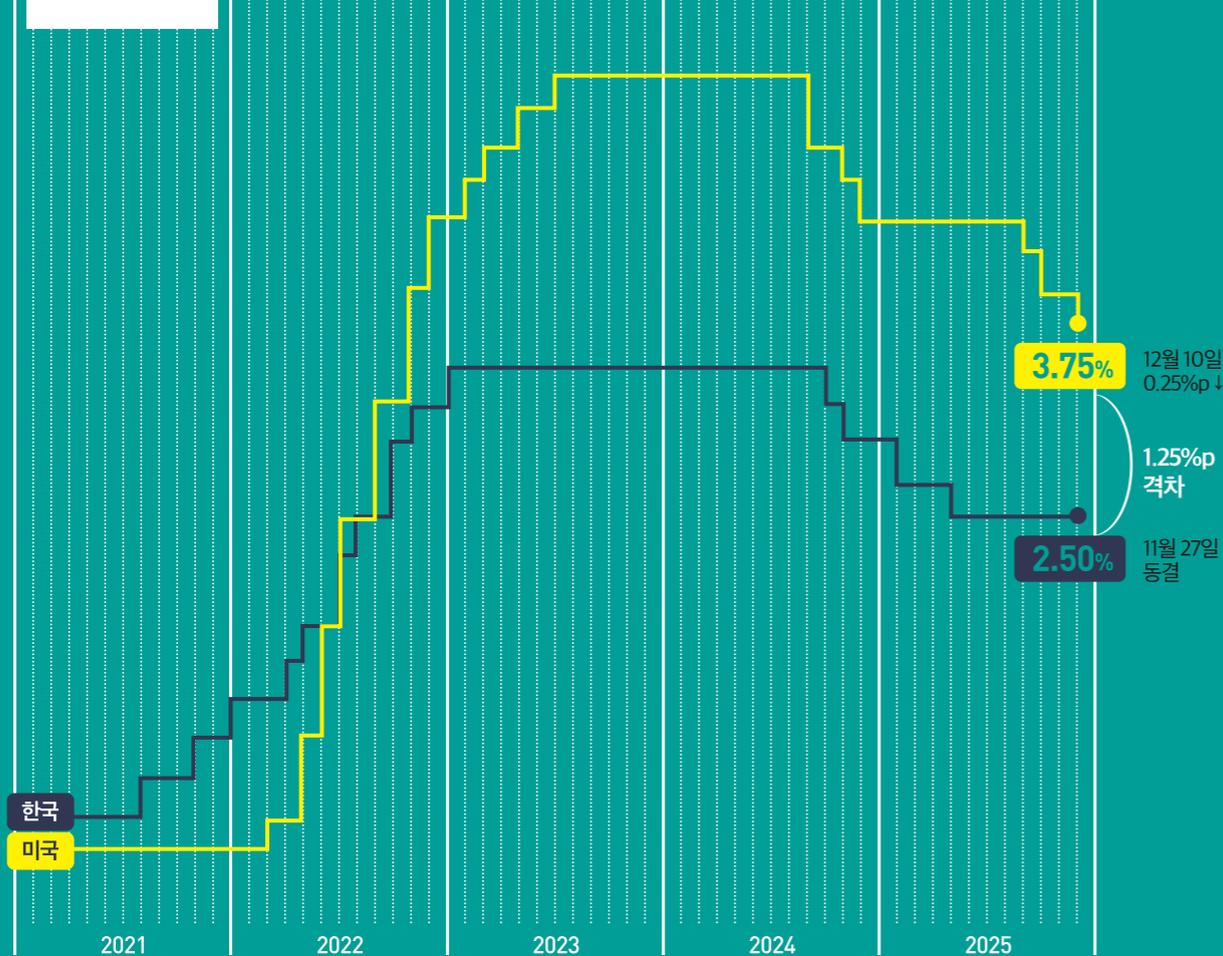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에는 모든 언론이 주목합니다. 금리는 개인의 금융생활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물가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늘고 저축이 줄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이를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사과 1개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것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고, 예금이 늘어납니다.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회수되니 돈이 귀해집니다.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즉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사과 1개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이 되는 것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오르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금리 결정이 진짜 중요한 이유

금리가 단순히 개인의 금융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산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겠죠. 즉 금리 인하는 곧잘 자산 가치를 높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 풀린다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가치가 뛰어나 ‘버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금리에는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 빌린 돈을 은행에 갚으려 합니다. 그러려면 주식이나 땅을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경제 수준보다 과도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면 자산 가치가 폭락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연 기준, 현지시간



출처: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

금리는 환율도 춤추게 해요 (feat. 금리 역전)

만약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다면, 투자자들은 한국 돈을 팔아 달러로 바꾼 다음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시중에 달러가 귀해집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1,000원에 1달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화 약세'라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50%로 미국의 정책금리 연 3.50~3.75%보다 최대 1.25%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인데다 세계 제1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비해 투자하기 안전한 나라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금리는 통상 미국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이례적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추월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현상이 3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금리 역전 때문에 고환율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역전이 고환율의 한 원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금리 공부 실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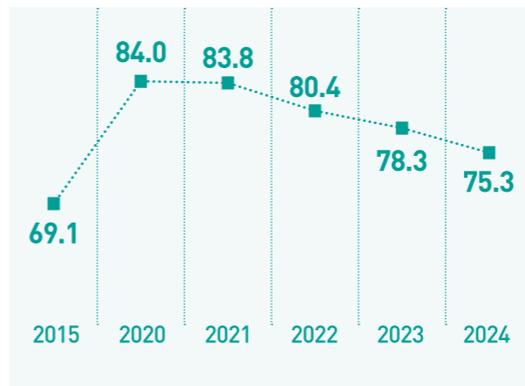
그래서 대출, 어디서 받을까요?

한국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5년 1,203조원에서 2024년에는 1,925조원까지 700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현재 75.3%로 추정되는데, 이는 글로벌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주머니가 빈곤해진 만큼 소비가 감소해 내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빚이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돈줄이 마를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도

무조건 오를까요?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의 '등대'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원가)+가산금리(마진)-우대금리]를 합해 결정합니다. 지표금리란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원가입니다. 여기에 은행의 운영비, 인건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비용 등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가산금리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은행에 금여를 이체하거나 예·적금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자신의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금리를 조금 깎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우대금리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이었는데도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은행채의 발행금리가 올랐습니다.
- ②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계대출이 늘다 보니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은행은 대출총액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줄였습니다.

고정금리가 유리할까요, 변동금리가 유리할까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을 말합니다. 즉 대출금리 2.0%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시중금리가 3.0%가 되어도 2.0%만 내면 됩니다. 때문에 향후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라 예측할 때 유리합니다. 변동금리란 시중금리가 즉각 반영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변동금리로 연 2.0%의 대출을 빌렸더라도 시중금리가 3.0%가 되면 3.0%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식이죠. 만약 향후 시장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가 긴 상품은 고정금리여도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3~5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설정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다시 설정합니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통상 이런 상품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정책금리의 경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은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어도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책대출이 오랫동안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신혼부부, 생애최초, 무주택 서민 등 특정 계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됩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27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수업』을 비롯해,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써왔다.



은퇴 후 현실 미리보기

의료비와 생활비, 직면해야 할 숫자들

어느 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날과 마주하게 된다. 그날이 기다려지는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가? 많은 은퇴 예정자는 후자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의 첫 단계는 '인정'이다.



2024년 12월 23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2.9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약 7년 정도 빠르다.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0% 내외로 낮은 편이다. 2024년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1%만이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부족하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뜻이다. 왜 그럴까? 사는 게 빠듯해 준비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 앞서 차일피일 미룬 결과"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은 어떨까?

[미리보기 ①]

의료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간극

급여, 더 이상 없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정확한 날짜에 입금되던 급여는 퇴직금과 함께 종적을 감춘다. 예상한 일이지만 막상 겪고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든다.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속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감정은 소속감 상실을 넘어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명함의 효용도 끝난다. 사회적 신분증이 없어지니 인적 네트워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보자. 은퇴 후에 몇 퍼센트나 남을까? 연락처에 있는 이름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며 만들어진 인맥일 것이다. 열심히 일한 증거라 더 씁쓸하다.

건강은 갈수록 악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년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진료 현황』을 보면 1인당 연간 진료비가 60~64세는 296만 278원, 65~69세는 393만 9,912원, 70~74세는 501만 5,954원, 75~79세는 588만 4,098원, 80~84세는 686만 1,963원, 85세 이상은 740만 3,219원이다. 80~84세가 되면 퇴직 직후 대비 세 배 이상 높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국민의 2024년 기대수명은 83.7세로, 남자는 80.8세, 여자는 86.6세다.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66.4세로, 기대수명과 약 17년이나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 약 17년 동안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수입은 줄고, 의료비는 높아지는 현실을 떠나 행복한 라이프 2.0을 살려면 금연과 금주는 물론 운동이 필수라는 얘기가.



[미리보기 ②]

'최소'가 아닌 '적정' 생활비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더라도 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서는 게 현실이다. 은퇴 후에도 고령층이 다시 구직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였다.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9.4%에 달했으며, 이들이 일을 하려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5.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하는 즐거움'(35.8%)이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노후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3.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근로 희망 연령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3월 8일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내 50~60대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실질 은퇴 나이'는 72세까지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조기 퇴직한 뒤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70세가 넘어서까지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통계청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이고, 조금 여유 있는 월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이다. 은퇴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은 53%의 경우 생활비 출처 중 노령연금 같은 공적수혜금이 32%,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30%이며, 가족 수입이나 용돈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24%나 된다. 연금을 미리 준비했다면 부담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족 수입이나 용돈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미리보기 ③]

자기 객관화를 위한 질문들

다양한 통계와 조사 결과를 통해 은퇴 후 마주하게 될 현실을 살펴봤다. 은퇴가 두려운 이유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아래 표를 작성해 보자.

현 직장 예상 근무 기간	년
현재 하고 있는 은퇴 준비	
①
②
③
④
⑤
퇴직 3년 후 자신의 모습	
가정(가족) 생활 측면:	
사회적 관계 측면:	
경제적 측면:	
은퇴 준비를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작성하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다. 은퇴 후에도 경쟁은 지속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은퇴 준비를 빨리 할수록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꿈, 현실로 만들어보자.



최승영
(주)마스터피스 얼라이언스 및 은퇴 준비 유튜브 '유브랜드'의 대표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다. 2021년 코칭 기반 은퇴 준비서 『빨리 은퇴하라』에 이어 2025년 『경험과 경력에서 은퇴 자원 찾기』를 출간했다.

마음 돌봄 워크북 1편 🔍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일까?

『교정』이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손잡고 『마음 돌봄 워크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건강검진에 앞서 진행되는 문진에 해당합니다. 첫 호의 주제는 스트레스, 가장 가까우며 친밀한 적입니다.

“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나만 힘들지?” 하는 사람 손! 심리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스트레스는 ‘무슨 일이 있었나(외부 사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개인이 ‘어떻게 인지(Perceive)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이 이론은 1983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셀던 코헨에 의해 정립된 이후 널리 퍼졌는데요. 코헨 박사는 이에 기반해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이하 PSS)’를 개발, 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 이제 다들 공감하셨을 듯한데요. 여기에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더해 만든 척도라면? 안 해볼 이유 없죠!

Step 1

나의 스트레스와 1:1로 만나기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최근 1개월 동안 마주한 생각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각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점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①~⑥까지는 전혀 없었다 0점, 거의 없었다 1점, 때때로 있었다 2점, 자주 있었다 3점, 매우 자주 있었다 4점을 적어주세요. 반대로 ⑦~⑩은 횟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적으면 됩니다.

전혀 없었다(0) — 거의 없었다(1) — 때때로 있었다(2) — 자주 있었다(3) — 매우 자주 있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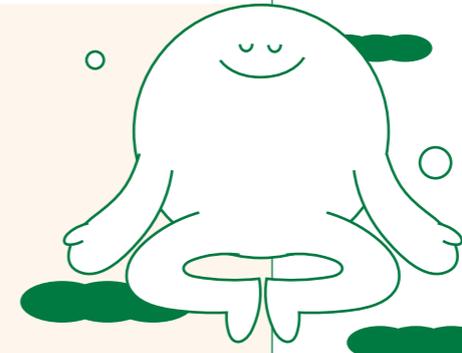
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당황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②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나요?	
③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했나요?	
④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⑤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나요?	
⑥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⑦ 개인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나요?	
⑧ 일상의 일들이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⑨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나요?	
⑩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	

총점	0~13점	14~18점	19~23점	24~40점
	😊 양호	🙂 보통	😟 주의	😡 위험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이종하 외, 2012)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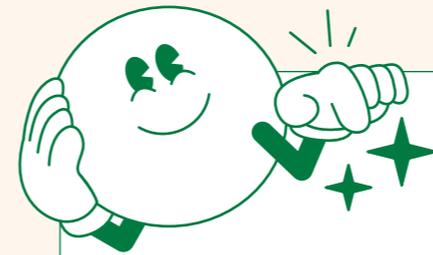
Step 2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법 만들기



결기 명상, 호흡 명상으로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이완돼 몸에 쌓인 긴장이 풀립니다. 호흡을 크고 깊게 하면서 온몸에서 힘을 빼는데 집중해보세요. 어느새 몸과 마음이 이완될 거예요.



생각 바꾸기로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고, 생각에 의해 감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나면, 뒤따라 오는 감정도 부드러워지고 너울도 잔잔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을 한 번 점검해보고, 긍정의 렌즈로 바꿔 끼우는 연습을 해봅시다.

나에게 해가 되는 습관과 이제 헤어지세요

지나친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는 잠깐 동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단 현상과 피로, 수면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와 이별하는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햇볕을 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수면에 집중하는 등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나를 향한 응원의 말로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스트레스는 일을 더 잘하려 하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찾아옵니다.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나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심리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마음나래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교정본부 주요 소식

2026 01+02



2026. 01. 29.

일일 교도관이 된 법무부 장관 “현장 중심 정책 펼치겠다”



법무부가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법무부장관, 법조기자단과 함께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정책 책임자와 언론이 교정 현장을 직접 점검·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장관과 법조기자단은 이날 오전 현장에 도착해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수행했다. 아울러 마약범죄 근절과 재범 방지를 위한 ‘마약류 사범 회복이음 과정’ 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정성호 장관은 보안과장 역할을 맡아 수용자 난동 상황을 가정한 진압 훈련에 참여, 돌발 상황 대응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의 교정공무원들과 함께했다. 점심시간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과의 간담회 자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은 “노후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교정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정시설 환경과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 12. 26.

이훈연 교정본부장, 서울남부교정시설 방문

지난해 12월 26일 이훈연 교정본부장이 서울남부교정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기관의 운영을 점검하고 추진 정책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만델라소년학교를 방문해 소년 수형자와 그들을 가르치는 교정공무원인 교사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만델라소년학교는 15세에서 17세 소년을 전담하는 교정시설로, 소년 수형자들이 형기를 마친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 12. 29.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 사범 집중 관리방안 논의

법무부가 국무조정실 주재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5개 관련 부처가 참석, 범부처 차원의 마약류 정책과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편물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시범 실시해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사범의 중독 치료 및 재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회복이음과정(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중독 재활 수용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6. 01. 01.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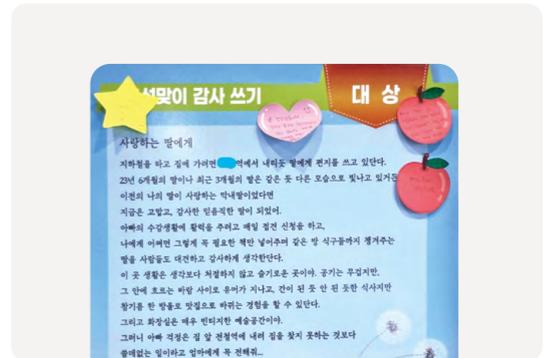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급증한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독 수준별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약류 중독의 차단과 재활, 예방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26. 01. 15.

제7회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869명 응모, 220명 입상

지난 1월 1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제7회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법무부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69명의 수용자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220명이 입상했다. 수용자 감사쓰기는 수용자들이 매일의 일상 중 감사할 일을 기록하며 자기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 활동으로, 감사 표현을 통해 동료와 교도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화 프로그램이다.



2026. 01. 16.

국민과 더 가까이... 교정기관 언론 홍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언론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6일 법무연수원(인천본원)에서 '언론 홍보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춘 언론 홍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교정본부 감상원 교정관을 비롯해 각 기관 언론 홍보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2026. 01. 19.

교정공무원 사복 착용 개선안, 교정시설 보안성과 조직 일체감 강화

지난 1월 19일부터 교정공무원 사복 착용 개선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특별사법경찰팀, 사회복귀과, 분류과, 심리치료과 등의 소속 직원이 수용자 귀향과 상담 업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필요 시에만 사복을 착용하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교정시설 내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외부인과 직원의 명확한 식별을 통해 보안성과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교정기관 소식을 전합니다

더 밝은 교정행정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



의정부교도소

송지호 배우·차정원 감독이 함께한 장학금 전달식

의정부교도소 김영득 교정위원이 수용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자리에 영화 「만남의 집」 차정원 감독과 주연을 맡은 송지호 배우가 함께했다. 송지호 배우는 의정부교도소 명예 교도관으로 활동 중이며, 이날 수용자 자녀들을 만나 인형을 선물 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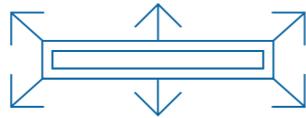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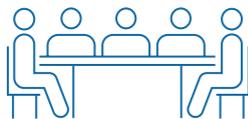


서울지방교정청

원주교도소

이흥연 교정본부장, 신축 부지 등 정책 현장 방문

지난해 12월 12일 이흥연 교정본부장이 원주교도소를 찾았다. 이흥연 교정본부장은 먼저 화재 등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을 점검한 후, 봉산동 255번지 일원 신축 부지를 찾아 꼼꼼하게 현장을 살폈다. 이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사안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제2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제2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이날 구치소 내 주요 시설을 참관한 후, 교정공무원 홍보 방안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 가족 위한 '보라미 꿈 나눔터' 개관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지난해 12월 29일 '보라미 꿈 나눔터' 개관 기념 행사를 가졌다. 기관 내 비상 대기 숙소 관리동 2층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으로, 타지에서 온 직원들이 가족·친지를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숙박과 취사 시설을 갖췄다.



포항교도소

참여형 공직기강 프로그램 진행

포항교도소가 공직기강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비위 근절 다트' 위 '음주운전' 등 근절 표어를 맞추며 공직기강의 중요성을 리마인드하는 한편,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주교도소

2026년 상반기 직업훈련생 입교식

여주교도소가 지난 1월 7일 '2026년 상반기 직업훈련생 입교식'을 열었다. 올 상반기에는 100명의 수용자들이 지게차 운전, 양식 조리 등 7개 공과에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습 중심의 직무 훈련을 받게 된다. 여주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교도소

교도소에 올려피진 교향악(with. 대구시립교향악단)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난해 12월 19일, 대구교도소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수용자들에게 예술을 통한 마음의 안정과 회복을 제공하기 위해 대구교도소가 기획했으며,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김천소년교도소
붕어빵으로 전한 희망



김천교도소 소년 수형자들에게 희망과 온기가 전해졌다. 김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김천대광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소년 수형자들을 위해 일일 붕어빵 봉사에 나선 것. 봉사자들은 “붕어빵의 온기를 통해 세상의 따뜻한 시선과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후기를 보내왔다.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대체복무요원과 직원들, 새 풋살장에서 첫 경기

지난해 12월 24일, 공주교도소 풋살장에서 개장 후 처음으로 경기가 열렸다. 이날 경기는 대체복무요원과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직접 경기를 뒀 직원들은 “대체복무요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서로 몸을 부딪치고 땀을 흘리고 나니 거리감이 눈녹듯 사라졌다”고 후기를 전해왔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우수 활동 교정위원 시상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가 1월 13일 '2025년 하반기 우수 활동 교정위원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표창 수상자 외에 각 부서장, 교정협의회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와 고마움을 전했다. 수상자들은 소감을 통해 2026년에는 더욱 뜨거운 진심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한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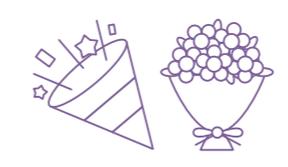
지난 1월 14일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이 헌혈에 나섰다. 현재 충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4.5일 분으로,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인 5일에 못 미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를 실시해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고, 이웃사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뜨거운 석별, 2025년 하반기 퇴임식

지난해 12월 29일 광주교도소 사무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삼재 소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과 직원 50여 명이 참석, 교정에 헌신한 선배들의 삶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해 퇴임자의 인생2막을 응원했다.



전주교도소

크리스마스 트리로 나는 행복

전주교도소가 연말연시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환하게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직원들은 사무청사 앞 정원을 붉은색 오너먼트와 알전구로 장식해, 밤에도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과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순천교도소

학업 마친 수용자들, 전문학사 학위 수여

지난 1월 22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지난해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에서 커피 바리스타와 외식조리 분야 교육을 받은 수용자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것. 이날 졸업식에는 순천제일대학교 김영화 부총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군산교도소

직업훈련생들의 희망반지 기부

군산교도소 직업훈련 수용자 12명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소내 재활관 귀금속훈련장에서 만든 반지 175개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한 것. 군산교도소는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담아 '희망반지'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취지를 전했다.



EVENT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Quiz

정읍교도소에는 지역 주민과 기관이 모은 5,000권으로 출발한
도서관이 있어요. 어느덧 7,300권의 장서를 갖추고
수용자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이 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ㅎ □ ㄷ ㅅ ㄱ

Hint 수용자들이 이곳에서 새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 ✉ correct2023@naver.com으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공모기간 1.8.~4.15. 18시
1등 최대 1억원
우수 참여자 1만명 3만원



From Idea to Economy

모두의 아이디어

